



## 주일한국문화원, 현지 배급사 KDDI와 공동으로 한국영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특별시사회 개최

- 최신 한국영화 상영을 통해 현지 한국영화 시장 활성화 지원 -

주일한국문화원(원장 박영혜, 이하 문화원)은 한국 영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의 일본 개봉(4월 10일 예정)에 앞서, 배급사 KDDI와 공동으로 오는 3월 26일(목) 문화원 한마당 홀에서 특별 시사회를 개최한다.

김혜영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주연: 이레, 진서연)는 엄마를 잃은 여고생과 간간한 완벽주의자 선생님이 예술단에서 만나 겪는 '마음의 교류'를 그린 감동적인 작품이다. 한국 영화 최초로 제7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제너레이션 K플러스 부분의 수정곰상(작품상)을 수상했으며, 국내에서도 제46회 청룡영화상 신인감독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시사회는 문화원이 한국 영화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현지 한류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하였다. 우수한 한국 영화 상영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정서 등 다양한 매력을 전함으로써, 주재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일 문화교류를 더욱 증진시키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시사회 당일에는 김혜영 감독과 한국예능 팬으로 알려진 일본탤런트 YOU가 무대인사를 통해 관객과 만나며, 일본 현지 팬들과 소중한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문의처	주일한국문화원 ( pr@koreanculture.jp )	행사 담당	김강식	+81-3-3357-6054
		홍보 담당	조은경	+81-3-3357-5972

□ 행사 개요

- 행사명 : 영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 김혜영 감독 방일 기념 시사회
- 일시/장소 : 2026년 3월 26일(목) 18:30~ / 주일한국문화원 한마당 홀
- 주 최 :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KDDI 주식회사
- 협 력 : 닛카츠 주식회사
- 내 용 : 한국영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 시사회 및 김혜영 감독 무대인사



< 김혜영 감독 경력 >

- 2019년 JTBC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공동 연출을 맡아 수많은 시청자들의 인생 드라마를 만들어냈다. 첫 장편 영화 데뷔작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를 통해 힘차게 새로운 시작을 앞둔 관객들에게 희망찬 치유와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 필모그래피
  - 영화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2025) 감독
  -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2023) 감독
  - 『극한직업』 (2019) 조감독, 『특종 : 량첸살인기』 (2015) 조감독, 『스물』 (2015) 조감독 외
  - 드라마 「유니콘」 (2022) 연출, 「멜로가 체질」 (2019) 연출 외